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비교 분석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소비자정보학과 김시월, 조향숙

I. 서론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전쟁 후 태어난 인구집단으로 다른 세대에 비하여 인구수가 많으며, 주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시대를 이끈 주역이다(정정희 외, 2010). 이전 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는 경쟁력이 높아 수차례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노동시장, 주택시장 등 산업구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노후소득보장 등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향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이준협, 2013; 이지영 · 최현자, 2011)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조기 은퇴로 인해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실제, 베이비붐 세대는 2012년 기준 714만 명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20.1%에 달하며, 취업자도 532 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2%를 차지하는데,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의 베이비붐 취업자 수 감소폭(연 -5.7만 명)이 인구자연 감소분(연 -1.7만 명)을 크게 상회하면서 고용하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향후 5년간 대다수의 베이비붐 세대가 만 54세를 넘어서면서 은퇴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일보, 2013.03.15; 통계청, 2010; 이준협, 2013).

이제 1955년생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2020년부터는 매년 70 ~ 80만 명이 노년층이 될 것이고,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4.3%가 노인인구로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박덕배, 2005; 황선훈 외, 2010; 통계청, 2012b), 베이비붐 세대의 향방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개인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재정실태 파악 및 향후 노후 준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는 베이비붐 세대의 당면한 개인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개인적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3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 또는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실, 많은 고령 근로자들은 주된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 은퇴란 '직장에서 물러나 사회활동을 중지하고 한가롭게 지낸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직업적 의미에서 은퇴는 고령자들이 유급형태의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령 근로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찾고 있고 주된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동일한 직종 또는 다른 산업과 직종에서 전일제, 파트타임 방식 등으로 계속 일하면서 점진적으로 유급형태의 일자리를 떠나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근로형태로 일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밟으며 노동시장을 떠나기 때문에 은퇴의 보편적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이형종·박흥민, 2012).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젊은 시절을 보낸 직장의 은퇴 후, 경쟁이 치열한 생계형 창업 형태로 새롭게 취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매일경제, 2013.04.01; 방하남, 2005; 방하남 외, 2009)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경제(2013.04.01)에 의하면, 2011년 8월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그 시기와 맞물려 자영업자들이 증가했고, 베이비붐 자영업자들이 소득여건이 좋은 상태라기보다는 퇴직금, 즉 버틸 여력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취업형태가 자영업 위주이고, 임금취업자도 비정규적이거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방하남, 2005; 방하남 외, 2009), 50대의 생계형 창업은 주로 경쟁이 심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도산위험이 크고, 빈곤화에 노출될 위험(김복순, 2011)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 근무했던 직장을 은퇴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취업을 시도하는데, 동일한 소득을 벌더라도 취업의 형태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의 안정성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단순한 재정상태의 파악이 아닌 취업상태에 따른 재정상태의 차이를 보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베이비붐 세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소득이나 건강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일자리를 거론하였고(정경희 외, 2010; 김정엽, 2010; 김대환 외, 2011; 정종현·최수일, 2011; 최균 이정남, 2007; 최현석·하정철, 2012; 이성은 2012; 이형종·박흥민,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그 이외에는 경력개발, 가족관계, 자기발전, 여가활용, 사회공헌 등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취업형태나 재정상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수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분포와 차이에 대한 연구(권중돈·조주연, 2000; 권재숙·김성진, 2012; 권철 외, 2006; 유정이, 2006; 정종현·최수일, 2011; 배나래·박종선, 2009; 이정의 2010; 홍종선 외, 2012)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소득, 경제상태 등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정엽, 2010; 김대환 외, 2011; 정종현·최수일, 2011; 최균 이정남, 2007; 최현석·하정철, 2012; 이성은 2012)는 일부 있으나 경제활동 참여나 취업 여부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이성은, 2012)는 미비하여,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취업 여부와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분류하고, 취업여부에 따라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의 재정상태를 알아본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 요인을 알아본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관계와 각 집단의 경로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 관련 다양한 변수 중에서 취업여부에

다른 재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변수임을 밝히고,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의 개인적 자원 및 사회적 자원에서 지속적인 일과 관련된 복지와 재정 관련 지원 및 교육의 중요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 및 재정

베이비붐(baby boom)이란 출생률이 다른 시기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전쟁 후 또는 혹독한 불경기를 겪은 후 사회적·경제적 안정 속에서 태어난 세대를 지칭하며,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 그 연령대가 다르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단카이 세대라 불리는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종전 후인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하는데(시사상식사전 pmg, 2013; 이준협, 2013; 허은성, 2012), 일부 연구의 경우 1961년이나 1964년 또는 1975년생까지 폭넓게 규정한 연구도 있다(김영민, 2006; 정의신, 2010; 네이버지식백과, 2013; 이지영·최현자, 2011).

1955년에서 1963년에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 수는 1947년부터 1954년 사이에 태어난 출생자수보다 180여만 명이 증가하는 등 1955년부터 증가하여 1959년 정점을 찍고 1963년 산아제한정책을 실시하기 전까지 높은 출산율(86만 8천명)을 유지하여(김영민, 2006; 함인희, 2002; 정경희 외, 2010), 일반적으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가 내려졌다.

2013년 현재 만 50세에서 58세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있어서 재정 문제는 성공적 노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관리는 개별가계의 경제적 복지 뿐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활동에서 떠난 이후 가계의 소득보장이 어려워지면서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나타날 경제적 파급효과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이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나라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경우 자산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노후보장 문제가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다(남상호, 2011a).

또한, 이철선(2009)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인하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규모는 7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베이비 붐 세대에서 이 부담을 추가로 떠안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을 살펴보면 가계 소득은 전체 가계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서지원, 2012; 통계청, 2006; 2012a)이라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는 반면에, 총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유동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고(서지원, 2012; 정호성 외, 2010; 남상호, 2011b), 전체 베이비붐 세대

가계의 절반 이상이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정경희 외, 2010), 베이비붐 세대 중 7.1%가 지난 1년간 적어도 한번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어렵다는 연구(송태민, 2013)도 있었다.

구체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지원(2012)은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은 높으나 지출규모 역시 크고, 자산 규모는 큰 차이가 없으나 부채규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는 가구총소득이 더 많았고, 가구 총자산은 일하지 않는 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금융자산 및 부동산 규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계청(2006; 2012a)자료를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0년 기준 총자산은 3.7억 원이었으며, 2010년 2월말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자산보유액이 2.7억 원 수준을 고려할 때 가계의 자산보유 수준은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정경희 외(2010)는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연구에서 2010년 기준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4만 원이며,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규모는 평균 3.3억 원이고, 전체 조사 가구 중 55.9%는 부채가 있으며 부채가 있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8천 3백만 원이라고 하였다. 경제활동은 남자의 경우 99.9%, 여성의 경우에도 91.4%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등 남녀 간의 차이가 적은 편이며,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남상호(2011a)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실태를 살펴본 바, 총자산은 약 3억 4천만 원, 총부채가 6천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2억 8천만 원이며, 이 중에 금융자산이 6천만 원에 불과하여 별도의 근로소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 은퇴이후 소비지출에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정호성 외(2010)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만큼 일과 관련해서는 휴일근무, 초과근무도 당연시 할 만큼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시하였고, 부모의 생활비와 자녀의 교육비가 소비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 아래 세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은퇴 후 소득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은퇴 후 보유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에 의하면, 전체 베이비붐 세대 가계의 자산보유 수준은 높은 수준이나, 가계의 절반 이상인 50%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송태민(2013)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 중 7.1%가 지난 1년간 적어도 한번은 자살을 생각해 보았고, 자살을 생각한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52.8%), 가정불화(18.0), 외로움·고독(10.6%) 순이라고 분석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반증하였다.

관련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에 태어난 사람을 뜻하며, 나라에 따라 연령이 달라 미국의 경우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일본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사전, 2013). 전체인구의 14.6%(712.5천명)로 거대한 집단이며, 2010년부터 55년생의 퇴직시작연령(55세)의 시작으로 은퇴 가시화 세대로 비유된다. 그리고 다른 세대와의 차이점을 보면, 첫째, 세대관계에서는 자녀양육 및 부모부양의 부담을 당연시 하는 반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둘째, 건강 인식 및 관리면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건강관리 실천율이 높다. 셋째, 교육배경에서는 75%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진학으로, 현 노인세대들에 비하여 고학력이다. 넷째, 종사산업에서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과 건설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일반사무, 공학기술종사자, 보건의료

전문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섯째, 여가 문화면에서는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향유 수준은 낮다. 여섯째, 자산 면에서는 투자의 라이프 사이클 상 자산축적의 마지막 지점에 위치하여 비교적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곱째,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서는 선진화로 인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성장과 위기를 동시에 경험한 세대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특성중 문제시 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준비 안 된 은퇴와 수명연장, 부족한 소득 보장, 연령상승으로 인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대체노동력의 부족,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주택시장 침체가능성,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급증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부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이들이 취업, 생산활동, 소득 및 자산의 유용함과 건강의 유지, 그리고 사회적 기여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경제활동 기간의 연장과 지속적인 소득창출, 그리고 노후대비를 가능하게 하며, 비영리 부문에서의 일자리 연계,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을 고려한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활용, 그리고 기타 여가, 문화, 의료와 관련된 성장 유망 분야의 발굴 등을 지적하고 있다.

2.2.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김희주 주경희, 2008; 김시월·조향숙, 2012; 박인숙, 2011; 정순돌·이현희, 2012; 최성재, 1986)으로 협의로 개인의 생활만족도로 정의하는 연구와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 폭넓은 의미로서의 만족도로 정의하는 연구로 분류된다.

첫째, 삶의 만족도를 개인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한 연구(김희주 주경희, 2008; 정순돌·이현희, 2012)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순돌·이현희(2012)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를 생활만족도와 같은 개념으로 보며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주관적 관점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김희주 주경희(2008)도 역시 삶의 만족도를 생활만족도와 같은 개념으로 보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둘째,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 폭넓은 의미로서의 만족도로 정의하는 연구(권재숙·김성진, 2012; 박인숙, 2011; 최성재, 1986)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성재(1986)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평가와 전망으로 정의하였고, 권재숙·김성진(2012)은 인간생활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심리상태를 모두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보았으며, 박인숙(2011)은 삶의 만족도란 인간이 심리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으로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생활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감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협의의 개념으로 생활만족도와 동일하게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연옥·박재연·윤현숙(2011)은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노부모 세대와의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았는데, 분석 결과, 베이비 붐 세대와 노부모 세대 모두 삶의 만족도는

베이비 붐 세대가 노후보 세대보다 조금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세대 간 비교한 결과 경제적 상태가 노후보 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공통요인으로 밝혀졌고, 실존적 영성이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정순돌·이현희(2012)는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하기 위하여 1998년과 2008년을 비교 분석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는 1998년에 비하여 2008년에 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향요인은 여가활동평가, 주거환경평가, 가족관계평가, 임금, 취업안정성 등이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정경희 외(2010)는 베이비부머는 노후 삶에 있어서 일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 일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베이비부머의 약 40%가 현재 삶과 노후의 삶에 있어 모두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서지원(2012)은 일하는 베이비부머와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제적 만족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일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가구 가구총소득이 많을수록, 총자산이 많을수록, 가구 총부채가 적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았고,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머의 경우는 가구총소득이 많을수록, 가구총자산이 많을수록, 금융기관 부채가 없는 경우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계 총부채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구주 혹은 비가구주, 그리고 가족수 및 가족의 유형에 따라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는 또한 관련 변수도 다양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 경제적 활동, 그리고 소득 등 재정 관련 변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재정 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취업 여부와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문제 및 방법

3.1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의 재정상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의 삶의 만족도 요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재정상태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인과관계는 어떠하며, 두 집단의 경로 간 차이가 있는가?

3.2 연구 모형

연구문제에 기초한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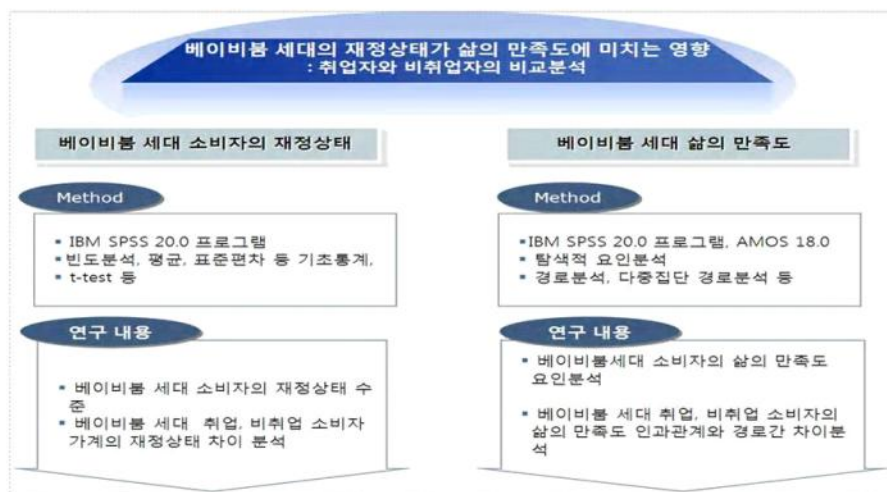
3.3 자료 및 분석 방법

3.3.1 분석 대상과 표본

	원 표본	분석표본
자료 명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의 4차년도(2011) 자료	좌 동
대 상	- 전국 만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5,110가구와 -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86여명	- 분석대상: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 표본 수 : 총 563명 (취업자: 388명, 비취업자 175명)
지 역	전국	좌 동
표본 추출방법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25개 지역 별로 주택의 특성, 산업별 취업자수, 행정구역 등을 분류지표로 삼아 조사구를 분류하고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ample)으로 표본 추출	KReIS의 4차년도(2011) 자료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인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그림 2] 조사대상과 표본

3.3.2 분석 방법



[그림 3] 연구 내용별 분석방법

3.3.3 분석 문항의 구성

본 연구의 분석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문항의 구성

구분	변수	변수 값	문항수	
사회경제적 변수	성별	(명목 척도) 1. 남성 2. 여성	1	
	가구주 여부	(명목 척도) 1. 가구주 2. 비가구주	1	
	배우자 유무	(명목 척도) 1. 유 2. 무	1	
	연령	(연속변수) 만나이를 직접 기입	1	
	전체 가구원수	(연속 변수) 전체 가구원수를 직접 기입	1	
	자녀수	(연속 변수) 자녀수를 직접 기입	1	
	첫 자녀 연령	(연속 변수) 첫 자녀 연령을 직접 기입	1	
취업 관련 변수	취업여부	(명목 척도) 1. 취업 2. 비취업	1	
	고용형태	(명목 척도) 1. 임금 근로자 2. 비임금 근로자	1	
	임금 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	(명목 척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1	
	비임금 근로자의 유형	(명목 척도) 1. 고용주 2. 자영업자 3. 무급가족 종사자	1	
	가족 중 근로소득원 수	(비율 척도) 가족 중 근로소득원 수를 직접 기입	1	
재정 상태	소득	가계 총소득	(비율 척도) 전년도 연간 총소득을 직접 기입 ▪ 전년도 연간 총소득 = 근로소득 + 금융관련 소득 + 부동산소득 + 공적이전 소득 + 사적이전 소득 + 기타 소득	7
		근로소득	(비율 척도) 전년도 연간 근로소득을 직접 기입 ▪ 근로소득: 개인이 직장 취업이나 자영업 등의 근로 활동으로 벌어들인 금액.	
		금융 소득	(비율 척도) 전년도 금융 소득을 직접 기입	
		부동산 소득	(비율 척도) 전년도 부동산 소득을 직접 기입	
		공적이전 소득	(비율 척도) 전년도 공적이전 소득을 직접 기입	
		사적이전 소득	(비율 척도) 전년도 사적이전 소득을 직접 기입	
		기타 소득	(비율 척도) 전년도 기타소득을 직접 기입 ▪ 기타소득: 가족 및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일회성 선물, 현금, 보험금, 퇴직금,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이나 현물, 결혼 및 장례를 치르면서 받은 경조금, 복권 당첨금 등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일시적 소득	
	자산	가계 총자산	(비율 척도) 현재 총자산을 직접 기입 ▪ 총자산(천원) = 금융자산(천원) + 부동산 자산(천원) + 기타 자산(천원)	4
		금융 자산	(비율 척도) 현재 금융 자산을 직접 기입	
		부동산 자산	(비율 척도) 현재 부동산 자산을 직접 기입	
		기타 자산	(비율 척도) 현재 기타 자산을 직접 기입 ▪ 기타자산: 직접적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승용차, 농기계, 각종 회원권, 귀금속(예물), 그림 등 소장예술품 등	
	부채	가계 총부채	(비율 척도) 현재 총부채액을 직접 기입 ▪ 총부채액= 금융기관 부채 +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 기타 부채	6
		금융기관 부채	(비율 척도) 현재 금융기관 부채액을 직접 기입	
		비금융기관 부채	(비율 척도) 현재 비금융기관 부채액을 직접 기입	
		개인적으로 빌린 돈	(비율 척도) 현재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직접 기입	
		전세금, 임대보증금 등 받은 돈	(비율 척도) 현재 전세금, 임대보증금 등 받은 돈을 직접 기입	
		기타 부채	(비율 척도) 현재 기타 부채액을 직접 기입 ▪ 미리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갚돈 등 현재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등을 제외한 기타 부채	
삶의 만족도	(5점 리커트 척도) 1. 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10	

IV. 연구 결과 및 해석

4.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

4.1.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는 2011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의 4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50세 이상의 가구원 중에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563명을 유효 표본으로 하였으며 사회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구주가 비가구주보다 많았으며, 대다수가 배우자가 있는 것(84.2%)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시기인 2011년 기준 약 54세이었으며, 전체 가구원수는 평균 3명이고, 자녀수는 평균 2명이었으며 첫 자녀 연령은 평균 29세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N(%) =563(100)

변수		전체 빈도(%)	평균
성 별	남	190(33.7)	
	여	373(66.3)	
가구주 여 부	가구주	234(41.6)	
	비가구주	329(28.4)	
배우자 유 무	유	474(84.2)	
	무	89(15.8)	
연령	51세 이하	101(17.9)	53.76 세
	52-53세	116(20.6)	
	54-55	204(36.2)	
	56세 이상	142(25.2)	
전체 가구원수	2명 이하	140(24.9)	3.49 명
	3명	156(27.7)	
	4명	145(25.8)	
	5명 이상	122(21.7)	
자녀수	없음	27(4.8)	2.09 명
	1명	81(14.4)	
	2명	310(55.1)	
	3명 이상	145(25.8)	
첫 자녀 연령	없음	27(4.8)	29.42 세
	10대 이하	27(4.8)	
	20대	223(39.6)	
	30대 이상	286(50.8)	

취업 관련 변수를 살펴보면, 취업 388명, 비취업 175명으로 취업자의 비율이 높았고,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가 52.3%, 비임금 근로자 47.7%로 나타나 취업자 중 임금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이 절반을 밑돌았다. 임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니 상용직이 51.9%로 가장 많았고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는 약 2명으로 1명이나 2명이 대다수(81.1%)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부 가족이 3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취업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취업을 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으나 취업을 한 경우에도 비임금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임금 근로자도 종사상 지위가 취약하여 임시직이나 일용직을 하는 경우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취업 관련 변수

전체 N(%)=563(100), 취업자 N(%)=388(100)

변수		빈도(%)	평균
취업여부	취업	388(68.9)	-
	비취업	175(31.1)	
	계	563(100.0)	
고용 형태	임금근로자	258(52.3)	-
	비임금근로자	235(47.7)	
	계	493(100.0)	
종사상 지위	상용직	108(51.9)	-
	임시직	55(26.5)	
	일용직	45(21.6)	
	계	208(100.0)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1명 이하	227(43.1)	1.82
	2명	200(38.0)	
	3명 이상	100(19.0)	
	계	527(100.0)	

* 무응답으로 인하여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4.1.2 분석대상자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

분석대상자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성별, 가구주 여부, 배우자 유무는 χ^2 분석을 연령, 전체 가구원수, 자녀수, 첫 자녀 연령은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 가구주 여부, 전체 가구원수, 첫 자녀 연령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배우자 유무, 연령, 자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가 취업여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베이비붐 세대의 혼인상태 별 경제활동 현황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참여율이 이혼, 사별, 미혼보다 높았다는 허은성(2012)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취업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56.4%, 비취업자 88.0%로 나타나 비취업자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았다는 허은성(2012)의 연구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이 남성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여성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이 남성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이준협(2013)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경제활동 경험의 차이가 적다는 정경희 외(2010)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가구주 여부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가구주가 많았으나 비취업자는 비가구주의 비율이 높았다. 전체 가구원수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많았고, 첫 자녀 연령은 취업자보다 비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자는 비취업자보다 남성이나 가구주가 많았고, 첫 자녀 연령은 어린 반면에 전체 가구원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취업자는 취업자에 비하여 여성이나 비가구주의 비율이 높으며, 첫 자녀 연령이 많았고, 전체 가구원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취업 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

전체 N(%) = 563(100)

변수		취업	비취업	전체	$\chi^2(df)$
		빈도(%)	빈도(%)	빈도(%)	
성 별	남	169(43.6)	21(12.0)	190(33.7)	53.72(1)***
	여	219(56.4)	154(88.0)	373(66.3)	
	계	388(100.0)	175(100.0)	563(100.0)	
가구주 여 부	가구주	206(53.1)	28(16.0)	234(41.6)	68.32(1)***
	비가구주	182(46.9)	147(84.0)	329(58.4)	
	계	388(100.0)	175(100.0)	563(100.0)	
배우자 유 무	유	329(84.8)	145(82.9)	474(84.2)	.340(1)
	무	59(15.2)	30(17.1)	89(15.8)	
	계	388(100.0)	175(100.0)	563(100.0)	

<표 5> 취업 여부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계속)

변수	취업 평균	비취업 평균	t값
연령	53.67	53.97	-1.66
전체 가구원수	3.64	3.17	4.24***
자녀수	2.10	2.05	.70
첫 자녀 연령	28.66	31.18	-4.52***

*p<.05, **p<.01, ***p<.001

4.2 재정상태

4.2.1 재정상태 수준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상태 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계 총소득, 가계 총자산과 가계 총부채를 항목 별로 살펴보았다.

<표 6>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상태 수준

단위: 천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소득	근로소득	33891.66	25510.00
	금융소득	567.07	2882.51
	부동산소득	1269.86	4780.46
	공적이전소득	2100.22	5252.38
	사적이전소득	820.75	3586.71
	기타소득	480.36	3334.01
	가계 총소득	39129.91	26320.78
자산	부동산자산	246983.89	308699.94
	금융자산	40011.33	52683.98
	기타자산	12123.19	12538.74
	가계 총자산	299118.42	329061.99
부채	금융기관 부채 담보대출	14303.02	57969.67
	금융기관 부채 신용대출	1184.72	10431.00
	금융기관 부채 판매신용대출	55.06	790.62
	비금융기관 부채	142.10	1857.29
	개인적으로 빌린 돈	339.25	5266.26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1820.59	15639.34
	기타 부채	62.17	1052.72
	가계 총부채	17906.91	63042.32

분석 결과 가계 총소득은 연간 39,129.91천원으로 근로소득이 33,891.66원 으로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순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소득을 살펴보면 주로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었고 다른 소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다음의 2순위를 차지하는 공적이전소득은 연간 2,100.22천원으로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75.02천원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4차년도 조사시기인 2011년 전국 가계총소득은 3,841,586원(통계청, 2013)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총소득이 전국 가계총소득에 비하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총자산은 299,118.42 천원으로 3억을 밑돌았는데 표준편차가 329,061.99로 편차가 심하여 가계 간 자산의 차이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계 자산은 주로 부동산 자산으로 246,983.89천원이었고, 금융자산, 기타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비상사태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은 40011.33천원으로 연간 가계총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

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자산 구조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계들이 전체 자산의 약 70~80%를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은퇴 후 소비로의 전환이 용이한 금융자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지영·최현자(2011)의 연구와 유사하다.

가계 총부채는 17,906.91천원으로 주로 금융기관 부채 중 담보대출이 가장 많았고,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금융기관 신용대출, 개인적으로 빌린 돈, 비금융기관 부채, 금융기관 판매신용대출, 기타 부채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가계 부채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소비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나 비금융기관 부채가 있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취업 여부에 따른 재정상태의 차이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여부에 따른 재정상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취업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고 소득, 자산, 부채를 종속변수로 하여 t-test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여부에 따른 재정상태의 차이

단위: 천원

변수		취업	비취업	t 값
소득	근로소득	36493.52	28122.97	3.64***
	금융소득	468.17	786.34	-.99
	부동산소득	974.43	1902.69	-1.87
	공적이전소득	1258.47	3966.49	-4.26***
	사적이전소득	647.86	1204.06	-1.39
	기타소득	189.03	1126.29	-2.14*
	가계 총소득	40041.48	37108.83	1.22
자산	부동산자산	228113.69	288821.81	-1.94
	금융자산	36957.67	46781.74	-1.67
	기타자산	11948.45	12510.63	-.49
	가계 총자산	277019.81	348114.18	-2.12*
부채	금융기관 부채: 담보대출	17086.60	8131.42	1.68
	금융기관 부채: 신용대출	1706.17	28.71	2.63**
	금융기관 부채: 판매신용대출	79.90	0.00	1.65
	비금융기관 부채	206.19	0.00	1.81
	개인적으로 빌린 돈	427.84	142.86	.59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2435.54	457.14	1.91
	미리타고 부어야할 게	-	-	-
	기타 부채	90.21	0.00	.94
	가계 총부채	22032.45	8760.00	2.37*

*p<.05, **p<.01, ***p<.001

이 연구의 분석대상자인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즉 근로자가계의 총소득은 40041.48천원, 비취업 즉 비근로자가계의 총소득은 37108.83천원으로 나타나 근로자가계의 소득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2013)이 발표한 2011년 기준 근로자가계 총소득 4198.582천원보다는 낮고, 비근로자가계 3,274.255

천원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전체 가계의 근로자나 비근로자 가계에 비하여 총소득의 격차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총소득을 세부항목 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공적이전 소득, 기타소득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근로소득은 취업자가, 공적이전 소득과 기타소득은 비취업자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자산의 경우는 가계 총자산은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의 가계 총자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기타 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하는 베이비붐 세대집단은 가구 총소득이 더 많고, 가구 총자산은 오히려 일하지 않는 집단이 더 크며, 금융자산 및 부동산 규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서지원(2012)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계 부채는 가계 총부채와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계 총부채와 금융기관 신용대출의 경우 취업자가 비취업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삶의 만족도

4.3.1 삶의 만족도 요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 요인을 분류하고, 요인별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방법과 베리맥스(Varimax) 직각회전방법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삶의 만족도 요인

	삶의 만족도		h ²
	요인 I: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요인 II: 인간관계 만족도	
여가활동	.79	.19	0.66
경제적 상태	.79	.21	0.66
건강	.72	.24	0.58
집(주거상태나 주거환경)	.67	.25	0.51
자녀관계	.14	.82	0.70
부부생활	.17	.76	0.60
친구관계	.37	.67	0.59
이웃관계	.33	.65	0.53
고유치	2.21	2.33	
분산	31.31	29.06	
누적분산	31.31	60.37	
Cronbach's α	.78	.73	
평균	3.23	3.44	
KMO	.8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1528.28(28)***		

*p<.05, **p<.01, ***p<.001

그 결과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요인의 요인부하량이 0.6 이상으로 나타나고

KMO 값이 0.8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χ^2 값이 1528.28로 99.9%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타당성이 적정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또한 각 요인별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살펴본 결과 두 요인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명명을 위하여 내용을 검토한 후, 요인 I은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로 요인 II는 인간관계 만족도로 명명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요인 별로 살펴보면, 인간관계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44로 나타나 보통수준을 웃돌고 있었고,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는 3.23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9> 전체 삶의 만족도는 취업자의 경우 3.37, 비취업자는 3.26으로 나타나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요인 I: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와 요인 II: 인간관계 만족도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각 요인별 만족도가 약간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취업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전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취업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전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은 직장을 통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정체성의 확립, 대인관계의 확립, 사회적 지지의 획득 등 많은 것을 성취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는 것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김미령(2011)의 연구와 유사하다.

<표 9> 취업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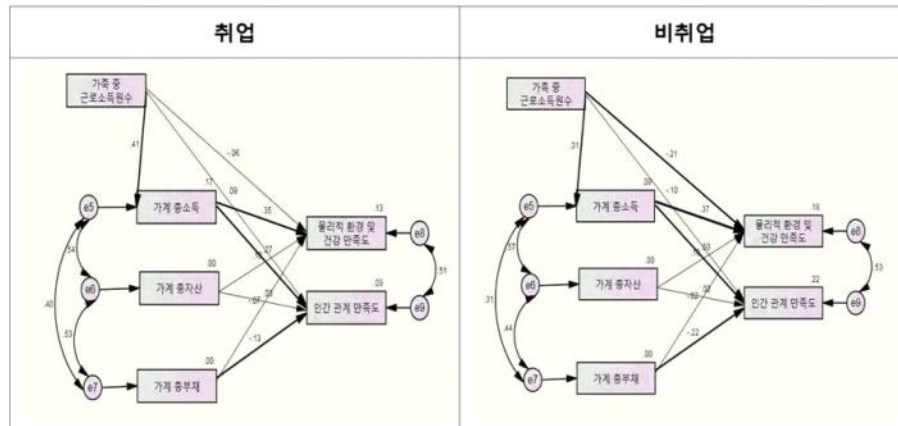
변수	취업 평균	비취업 평균	t값
요인 I: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3.26	3.16	1.66
요인 II: 인간관계 만족도	3.48	3.36	1.81
전체 삶의 만족도	3.37	3.26	1.97*

*p<.05, **p<.01, ***p<.001

4.3.2 취업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인과관계와 경로 간 차이 분석

4.3.2.1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 인과 관계

이 논문은 외생변수인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가 매개변수인 가계총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상태 변수인 가계 총소득, 가계 총자산, 가계 총부채가 삶의 만족도의 두 요인 즉, 요인 I: 물리적 환경 및 건강만족도와 요인 II: 인간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외생변수로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를 둔 이유는 이 연구의 분석 자료인 국민노후보장패널의 4차년도 데이터 수집 시 가계마다 다른 근로소득원수를 따로 조사하고 가계 총소득은 근로소득원수의 다소와 관련 없이 모든 가족원의 소득을 합산한 값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가 가계 총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를 외생변수로 투입하였다.



* 선이 두꺼운 경로는 유의한 경로이고, 얇은 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4]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 경로 모형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 모델의 경로분석을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형 모두 GFI, AGFI, NFI 값이 0.9를 넘었고, 비취업자 모형의 경우 비록 χ^2 유의도가 0.05보다 작았으나 χ^2 유의도는 필수조건이 아니고 다른 모형적합도가 적절하여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 경로모형 적합도

	χ^2	df	p-value	GFI	AGFI	NFI
취업	3.379	2	.185	.997	.994	.942
비취업	7.851	2	.020	.986	.848	.972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4>와 <표 11> <표 12> 와 같다.

우선, 취업 집단의 경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계 총소득은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가 정적 효과를 보여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가 많을수록 가계 총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I: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는 가계 총소득만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였고,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가계 총자산, 가계 총부채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즉, 가계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베이비붐 세대의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 총소득이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요인 II: 인간관계 만족도는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가 정적인 직접효과와 가계총소득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를 보였고, 가계 총소득과 가계 총부채는 직접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가 증가할수록, 가계 총소득이 많을수록, 가계 총부채가 적을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취업 집단의 경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계 총소득은 가족 중 근로원수가 직접 효과를 보여 가족 중 근로원수가 증가할수록 가계 총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I :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는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가 직접 간접 효과를, 가계 총소득은 직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는 가계 총소득에는 정적효과를 보여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에는 간접적으로 정적효과를 보인 반면에 직접적으로는 부적인 효과를 보여 총인과 효과는 부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자가 비취업 상태일 경우 다른 근로소득원수가 많아도 개인의 물리적 환경 및 건강만족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취업을 하여 가계 총소득에 기여할 때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의 경우 물리적 환경 및 건강만족도는 응답자가 취업을 하여 가계 총소득에 기여할 때 증가하여,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삶의 질 차원에서도 취업이 주요 변인임을 함의한다.

요인 II : 인간관계 만족도는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가 총소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정적 효과를 보이나, 직접적으로는 부적 효과를 보여 총인과 효과는 부적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요인 I : 물리적 환경 및 건강만족도와 동일하게 베이비붐 세대 소비자의 경우 본인이 취업하여 가계의 소득에 기여할 경우 인간관계 만족도가 증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근로소득원수의 증가는 응답자의 인간관계 만족도에는 부적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총소득은 정적 효과를 보이고, 가계 총부채는 부적 효과를 보여 가계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 총부채가 감소할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 경로분석 결과

경로		취업			비취업		
		표준화 계수	C.R.	p 값	표준화 계수	C.R.	p 값
가계 총소득	<-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0.412	10.74	***	0.306	5.196	***
요인 I :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0.061	-1.135	0.256	-0.215	-2.913	**
요인 I :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 가계 총소득	0.353	5.632	***	0.37	4.201	***
요인 I :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 가계 총자산	0.096	1.553	0.121	0.099	1.12	0.263
요인 I :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 가계 총부채	-0.069	-1.226	0.22	-0.016	-0.213	0.832
요인 II : 인간관계 만족도	<-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0.086	1.554	0.12	-0.101	-1.411	0.158
요인 II : 인간관계 만족도	<- 가계 총소득	0.268	4.182	***	0.502	5.85	***
요인 II : 인간관계 만족도	<- 가계 총자산	0.031	0.494	0.621	0.023	0.269	0.788
요인 II : 인간관계 만족도	<- 가계 총부채	-0.129	-2.239	*	-0.22	-2.951	**

<표 12>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 경로분석의 직·간접 효과

		가계 총소득			요인 I: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요인 II: 인간관계 만족도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인과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인과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인과 효과
취업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412	-	.412	-	-	-	.086	.111	.196
	가계 총소득	-	-	-	.353	-	.353	.268	-	.268
	가계 총자산	-	-	-	-	-	-	-	-	-
	가계 총부채	-	-	-	-	-	-	-.101	.154	.052
비취업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306	-	.306	-.215	.113	-.101	-.101	.154	.052
	가계 총소득	-	-	-	.370	-	.370	.502	-	.502
	가계 총자산	-	-	-	-	-	-	-	-	-
	가계 총부채	-	-	-	-	-	-	-.220	-	-.220

이러한 연구결과는 베이비붐 세대를 일하는 집단과 일하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고 종속변수를 경제적 만족도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하는 베이비부머의 경우 가구총소득, 가구총자산이 정적인 영향을, 가계총부채가 부적인 영향을 보이고, 일하지 않는 베이비부모의 경우 가구총소득, 가구 총자산은 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가계 총부채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고 금융기관 부채만 유의한 영향을 보여, 금융기관 부채가 없는 경우에만 경제적 만족도가 높다는 서지원(2012)의 연구와 일부 차이를 보인다.

4.3.2.2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 경로 간 차이분석

위의 분석에서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각각의 경로분석을 통하여 경로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위의 분석으로는 두 집단의 경로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통하여 경로 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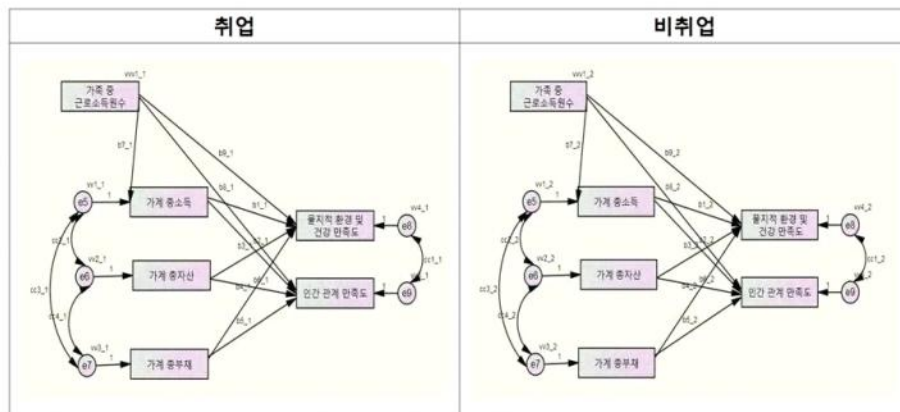
취업 여부에 따른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 경로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다중 경로분석을 하기에 앞서, 측정동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 변수인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N=388)과 비취업(N=175)으로 나눈 후, 구성 개념들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표 13>. 분석 결과, 비제약모델(model 1)과 요인부하량 제약모델(model 2)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Delta\chi^2 = 14.247$, $df = 9 < 16.92$)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를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측정동일성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측정동일성 분석 결과

	χ^2	df	CFI	$\Delta\chi^2/df$	$\Delta\chi^2$ Sig. Dif
[model 1] 비제약 모델	11.244	4	.991		
[model 2] 요인부하량 제약모델	25.491	13	.985	14.247/9	유의하지 않음

* $\Delta df = 9$ 일 때, $p = .05$ 수준에서 $\Delta\chi^2 > 16.92$ 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음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5>, <표 14> 참조).



[그림 5]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경로분석 모형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다중집단 경로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 요인 I: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가계 총소득 → 요인 II: 인간관계 만족도'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다른 경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경로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 요인 I: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경로는 취업자 집단의 경우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은 반면에 비취업자 집단의 경우는 부적인 영향을 보여 차이를 보였다.

'가계 총소득 → 요인 II: 인간관계 만족도' 경로는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이 모두 정적인 영향을 보여 가계 총소득이 높을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지만, 비취업자 집단의 가계 총소득이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취업자 집단의 가계 총소득이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자 집단보다 비취업자 집단에서 가계 총소득이 베이비붐 세대의 인간관계 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으로 취업자나 비취업자 집단 모두 가계 총자산이 삶의 만족도 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상태의 특

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실제 가계 총자산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주로 부동산 자산이고 유동 자산인 금융자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실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표 14>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취업	비취업	경로 간 CR값	$\Delta\chi^2$ Sig. Dif
		경로계수(C.R.)	경로계수(C.R.)		
가계 총소득	<-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0.412(10.74)	0.306(5.196)	-1.052	유의하지 않음
요인 I :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0.061(-1.135)	-0.215(-2.913)	-2.031	유의
요인 I :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 가계 총소득	0.353(5.632)	0.37(4.201)	0.386	유의하지 않음
요인 I :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 가계 총자산	0.096(1.553)	0.099(1.12)	-0.15	유의하지 않음
요인 I :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 가계 총부채	-0.069(-1.226)	-0.016(-0.213)	0.464	유의하지 않음
요인 II : 인간관계 만족도	<-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0.086(1.554)	-0.101(-1.411)	-1.866	유의하지 않음
요인 II : 인간관계 만족도	<- 가계 총소득	0.268(4.182)	0.502(5.85)	2.434	유의
요인 II : 인간관계 만족도	<- 가계 총부채	-0.129(-2.239)	-0.22(-2.951)	-1.269	유의하지 않음
요인 II : 인간관계 만족도	<- 가계 총자산	0.031(0.494)	0.023(0.269)	-0.126	유의하지 않음

* 경로 간 C.R값이 1.965 이상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함(우종필, 2012)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제4차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 여부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재정상태 수준과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관계와 경로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베이비붐 세대 재정상태 수준은 다음과 같았다. 연간 가계 총소득은 39,129.91천원, 가계 총자산은 299,118.42천원이었고, 가계 총부채는 17,906.91천원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 재정상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계 총자산, 가계 총부채가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고, 가계 총소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 항목 별로 살펴보면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은 취업의 경우 비취업보다 많았고, 공적이전소득이나 기타 소득은 비취업의 경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총자산은 비취업의 경우 더 많았는데,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등 세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채는 취업의 경우 비취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으로는 금융기관 신용대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취업 가계가 비취업 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요인 I :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요인 II : 인간관계 만족도로 명명하였으며, 각 요인별 평균은 5점 만점에 3.23, 3.44로 나타나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

체 삶의 만족도의 경우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각 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 인과관계와 경로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로분석과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각각의 경로분석 결과, 취업의 경우에는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는 가계 총소득을 매개로 하여 물리적 환경 및 건강만족도와 인간관계 만족도에 간접 효과를 보였고, 가계 총소득은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에 직접 효과를, 가계 총부채는 인간관계 만족도에 직접 효과를 보였다.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는 가계 총소득과 물리적 환경 및 건강만족도에 직접효과를 인간관계 만족도에 가계총소득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보였고, 가계 총소득은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인간관계 만족도에 직접 효과를, 가계 총부채는 인간관계 만족도에 직접 효과를 보였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 경로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한 결과 ‘가족 중 근로소득원수 → 요인Ⅰ: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 ‘가계 총소득 → 요인Ⅱ: 인간관계 만족도’ 만 경로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경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가계 총소득이 물리적 환경 및 건강 만족도와 인간관계 만족도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즉, 가계 총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총소득은 단순히 가계의 재정상태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인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소득 창출과 유지가 삶의 질 향상의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총소득을 보면 근로소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년 연장 등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이는 평균 수명의 증가를 고려하면 비단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문제이므로 지속적인 기업과 국가의 노력이 요구된다.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다중집단 경로분석에 의하면 취업자보다 비취업자의 가계총소득이 인간관계 만족도에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취업자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의 소득 창출이 인간관계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하여, 취업자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월급이 적어지더라도 취업을 통한 소득창출을 원할 경우 지속적인 취업의 유지 등의 점진적 퇴직제도 운영, 고용연장이나 은퇴자 또는 은퇴 예비자를 위한 취업의 기회 확대가 가계의 재정문제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인간관계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자산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로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있고, 비상시에 도움이 되는 유동자산인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의 특성 상 자녀의 결혼, 진학 및 대학 공부, 본인의 병환 등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자산의 균형을 위한 재무관리 교육 등 기존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재무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 전인적인 교육 차원에서 재무관리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학교나 회사로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교육과 함께,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시간자원이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접근성을 높여 언제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부채 구성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비금융권을 이용하고 있어 가계 재정의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건전한 가계는 효율적인 신용관리와 재정 운용으로 지속적인 건전한 금융기관의 이용을 유지하고, 일부 취약가계의 경우 비금융권에서 벗어나 금융권의 부채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다중채무자를 위한 단순한 구제차원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 스스로 본인의 재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신용관리 및 자산 운용을 위한 교육과 소득 창출 기회 확산으로 스스로 자신의 가계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세대의 특성 상 다른 세대보다 인구수가 많아 이들이 모두 공적이전 소득이나 세대에 의존할 경우 국가의 세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형태를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많고, 고용형태가 비임금 근로자도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해 온 주된 직장을 그만 둔 후에도 동일한 직종 또는 다른 산업에서 전일제, 파트타임 방식으로 계속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이후에도 노동 시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베이비붐 세대 제2의 취업을 위하여 제조업 등에서 종사하던 고숙련자의 장년층에 맞는 기술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등으로 기존경력 활용이나 재취업 교육 등 시장 재진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력이 필요한 농림어업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재취업 기회 제공과 서비스업 등의 자영업업을 시도하거나 유지·확장하고 싶어 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기회 제공 등의 전직 지원서비스의 강화도 전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점점 증가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발맞추어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취업과 비취업이 미치는 영향요인을 재정상태를 매개로 하여 살펴보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정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심리적 요소, 신체적 요소를 제외한 점, 단순히 취업, 비취업으로 분류하여 종사상 지위를 세분류하여 심층 분석을 제외한 점,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경제활동이 중요한 만큼 취업여부에 따른 재정상태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관계와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경로 간 차이분석 등 심층적인 관계를 본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VI. 참고 문헌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2011), “중·고령자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연구*, 22(1), 97-104.
- 김미령(2011),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자본이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 복지 관점에서,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순(2011), “자영업노동시장의 최근변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10, 7-18.

- 김시월 · 조향숙(2012), “중·고령자 단독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재정, 건강, 심리 상태와의 관계”, *Fiencial Planning Review*, 5(3), 89-116.
- 김영민(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엽(2010),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복지행정논총*, 20(2), 29-62.
- 김희주 · 주경희(2008), “한국적 성공적 노후척도를 활용한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1, 125-158.
- 권철 · 남철현 · 황해석 · 정한태 · 하순희 · 민경진 · 김순(2006),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2, 66-74.
- 곽인숙(2011), “예비노인과 노인의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1), 107-120.
- 권재숙 · 김성진(2012), “여성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연구* 16(2), 23-45.
- 권중돈 ·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 61-76.
- 남상호(2011a),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1115, 1-8.
- 남상호(2011b),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보유 현황과 시사점”, **제3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국민연금연구원.
- 매일경제(2013.04.01),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도 시급하다.
- 박덕배(2005), **베이비 붐 세대(1955~1963) 노후대책** 막막하다, 현대경제연구소.
- 방하남(2005),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와 노동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방하남 · 신동균 · 이성균 · 한준 · 김지경 · 신인철(2009),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배나래 · 박충선(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 761-779.
- 서지원(2011b),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41-66.
- 송태민(2013), “ 베이비붐 세대 및 에코 세대의 자살 특성분석”, *보건·복지 Issue & Focus*, 18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종필(2012),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 유인순 · 최수일(2012),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천안지역 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245-262.
- 유정이(2006), “지송 유호룡 교수 화갑 기념특집 : 복지, 통일분야 ;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 건강, 배우자 요인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연구*, 22,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41-254.
- 이성운(2012), “만성질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경제활동참여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 234-262.
- 이정의(2010), “한국노인의 교육수준별 생활만족 결정요인; 사회적 관계 및 참여, 건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 709-726.

- 이준협(2013), “베이비붐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베이비부머 은퇴 줄여야 고용률 70% 가능하다”, 경제주평, 13(20), 현대경제연구원.
- 이지영·최현자(2011), “베이비부머 가계의 재무적 특성과 연금수급액 추정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1), 41-66.
- 이철선(2009),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 이형중·박홍민(2012), “ 베이비부머의 퇴직과 일자리 지원방안”,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02-123.
- 임연옥·박재연·윤현숙(2011),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부모 세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33, 7-44.
-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김경래·박보미·유혜영·이은진(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순돌·이현희(2012),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 1998년과 2008년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5, 105-132.
- 정의신(2010), 한국의 국민연금과 사적이전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 전후 세대의 은퇴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종현·최수일(2011), “노인의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8), 47-61.
- 정호성·강성원·문외솔·박준·손민중·이찬영·이은미·이민훈·박빈순(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최균·이정남(2007),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의 지역별 특성 연구-대도시(서울시), 중소도시(춘천동지역), 농촌지역(춘천읍면지역)노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3, 79-101.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논총 49, 233-256.
- 최현석·하정철(2012), “노인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3), 559-568.
- 한국일보(2013.03.15), 자살이 너무 흔한 나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고서.
- 함인희(2002), 베이비붐 세대의 문화와 세대 경험, 한국의 문화경험과 가치관, 나남출판사.
- 허은성(2012), “베이비붐 세대 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경제활동 참여”, 여성연구논총 11, 85-116.
- 홍종선·정종현·조민호·김혜정(2012),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통계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 13-24.
- 황선훈·이연숙·윤혜경(2010),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이동계획 패턴 연구 -생애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10(5), 101-108.
- 네이버지식백과(2013), <http://terms.naver.com>.
- 시사상식사전(2013),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terms.naver.com>

위키백과(2013), <http://ko.wikipedia.org>.
통계청(2013), 가계동향조사, <http://kostat.go.kr>.
통계청(2012a), 가계금융·복지조사보고서, <http://kostat.go.kr>.
통계청(2012b),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0-2040, <http://kostat.go.kr>.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http://kostat.go.kr>.
통계청(2006), 가계자산조사, <http://kostat.go.kr>.

Havighurst, R. J., B. L. Neugarten, and S. S. Tobbin(1968). Disengagement and patterns of aging. In B. L.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A reader in social psych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Neugarten, B.L., Havighurst, R.J., Menaghan, E., and Mullan, J.(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Sousa, L., & Lyubomirsky, S.(2001). Life satisfaction. In Worell, J.(eds.), Encyclopedia of women and gender: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impact of society on gender, San Diego, CA: Academic Press.